이 시대가 우선의 가치로 추구하던 물질만능적 사고는 서서히 여러부분에서 그 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이 모자란 부분을 원초적 정서인 예술로 채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. 물론 문학도 제자리에서 한 몫을 해야겠지요.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부족하지만 소래나루도 한 귀퉁이를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. 그러고 보니 2005년에 첫 발을 디디어 2011년 제7호 발간을 맞이한 소래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.

정가 : 10,000원

소래나루

제8호
2012

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문학동우회

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문학동우회종합문예지

소래나루

2012 SORAENARU | 제8호 |

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문학동우회